

家庭暴力 發生原因의 理論과 實際

金勝權

家庭은 사랑의 공동체로서 暴力이 일어날 수 없는 場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가족원간의 관계가 원만치 않으면 暴力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른 어느 곳 보다 높다고 한다. 葛藤論의 立場에서 가족은 잠재적이고 실제적 葛藤을 내포하는 體制이며, 역동적인 家族關係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은 있을 수 있는 현상이므로 이를 回避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管理, 解決하여 家族關係를 강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주로 暴力의 深刻性, 後遺症, 加害者 處罰 및 被害者 保護를 위한 社會福祉的 對策 등에 있다.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고조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糾明하기 위한 관심을 등한시함으로써 暴力예방을 위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한계를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어 우려된다.

따라서 本 研究는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원인을 理論的 側面과 經驗的 側面에서 論議하고 糾明하고자 한다. 먼저 家庭暴力 關聯 세 가지 理論을 논의한다. 첫째,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攻擊的 性向을 지녔거나, 술 또는 마약 중독 등 個人的 次元의 精神病理學的 理論; 둘째,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의 社會心理學的 理論; 셋째,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해 설명되는 社會文化的 理論 등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실시된 가정폭력관련 주요 실태조사에 나타난 暴力발생원인을 검토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理論과 實證的 資料에 기초하여 本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한다. 이어서 이를 기초로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다양한 발생원인을 제거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加害者 個人과 汎社會的 側面에서 모색한다. 이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에서 가정폭력에 대처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주요용어 : 가정폭력, 부인학대, 남편학대, 暴力원인, 아동학대

筆者: 本院 責任研究員

▶ 원고를 검토하여 주신 鄭京姬 責任研究員과 金美淑 責任研究員께 감사드립니다.

I. 序論

家庭暴力은 ‘가족구성원간에 발생하는 폭력행위로서 身體的 暴力뿐만 아니라 精神的 및 財産上 被害를 隨伴하는 行爲’까지 포함하는 包括的 意味의 폭력을 말한다(김승권·조애지, 1998). 따라서 作爲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不作爲에 의한 폭력, 예를 들면, 遺棄 및 放任에 의한 행위와 損壞, 權利行使妨害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폭력개념이다. 또한 가정폭력행위의 가해 및 피해대상으로서의 家族構成員은 동일한 가구에서 생활하는 現在의 結婚 및 血緣關係에 기초한 가족원뿐만 아니라 다른 가구에 살고 있는 가족원과 過去 家族關係를 形成하였으나 現在는 家族關係가 終結된 경우, 예를 들면, 전처, 전남편, 전처의 부모, 전남편의 부모 등도 範疇에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範圍와 對象은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은 사랑과 조화의 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간의 葛藤이나 暴力을 非正常的이고 反社會的인 現象으로 보는 機能論的 家族 이데올로기가 팽배하며, 특히 전통적 家族主義(familism)가 강하게 잔존하고 있어 가정폭력문제를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부부싸움이나 子女養育을 위한 體罰은 가족내부 문제로 간주되어 그 해결은 가족원 당사자의 몫으로 보았으며, 사회적으로 表出되거나 問題視되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에 국한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강한 스트레스, 孤立化된 核家族, 情緒的 支持에 기반한 夫婦關係, 그리고 부모-자녀의 친밀감이 요구되는 核家族 理念 등은 가정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조병은, 1993). 따라서 家庭暴力은 가족생활에서 당연히 발생될 수 있는 事件으로 이해하는 葛藤主義的 視覺에서 家族社會學者와 女權運動家 및 女性學者뿐만 아니라 一般大衆까지도 家庭暴力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에서도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은 주

로 폭력의 深刻性, 後遺症, 被害者의 治療 및 保護 등의 社會福祉的 對策, 그리고 加害者에 대한 制裁 등에 있었다. 이와 같은 폭력행위 자체와 그 피해에 초점을 둔 접근은 가정폭력에 대한 社會的 問題意識을 한층 고조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보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폭력이 발생하게된 原因糾明을 등한시하게 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는 가정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個人 및 社會의 役割에 대한 보다 深層的 論議의 계기를 만들지 못함으로써 폭력근절을 위한 대책강구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 研究는 家庭暴力이 발생하는 原因을 理論的 側面과 實證的 側面에서 논의하여 한국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요인이 무엇이며, 보다 타당한 가정폭력 이론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을 事前에 豫防하고 보다 심각한 폭력으로서의 進展을 遮斷하기 위해서 매우 가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II. 家庭暴力 發生原因의 理論的 論議

社會學, 心理學, 精神分析學, 女性學 등 여러 분야의 學者들은 다양한 理論에 의하여 家庭暴力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家庭暴力이 매우 複合的이고 여러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學界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家庭暴力 關聯 諸 理論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¹⁾ 첫째, 先天的으로 공격적 성향을 가졌거나 술 또는 마약 중독 등 個人的 次元의 精神病理學的 理論, 둘째, 社會學習, 交換, 相互作用 등에 의한 社會心理學的 理論, 셋째, 社會的 資源, 葛藤體系 또는 文化的 規範 등에 의

1) 本稿에서 사용하고 있는 理論의 分類는 Steinmetz(1987)에 의한 것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Gelles & Straus(1979)를 참조

해 설명되는 社會文化的 理論 등이다(Steinmetz, 1987).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이론은 다양한 細部理論에 의해 설명되는데 本稿에서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 이론만을 검토하고자 한다.

1. 個人內的 理論(Intraindividual Theory)

家庭暴力에 대한 접근방법 중 個人內的 理論인 精神病理學的 側面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加害者는 個人的 行爲者로서 어떤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 관점에서는 家庭暴力이 先天的인 身體的 不具, 精神的 및 性格的 缺陷 또는 後天的인 心身障礙나 事故 등으로 精神的 疾患을 안고 있는 사람이나 알코올 및 麻藥의 中毒 등 개인의 病理的인 屬性에 의해 야기되는 加虐的 行爲로 이해된다. 즉, 개인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非正常(abnormality), 內的離脫(internal aberration), 缺陷(defect), 그리고 알코올 및 마약 중독 등에 의하여 暴力的이 된다는 것이다 (Gelles & Straus, 1979). 이 理論은 兒童 및 婦人虐待에 대한 초기연구에서 널리 사용되어온 概念的 模型으로 가장 오래된 가정폭력이론이다.

이 이론은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糾明하고 對應方案을 摸索하기 위하여 有用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科學的인 證據가 불충분하고 正常의 人格을 가진 사람이 가정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점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Kempe et al., 1962; Snell et al., 1964; Steele & Pollock, 1968; Wasserman, 1967). Gelles(1993)는 단지 個人的 要因에 의해서만 家庭暴力의 발생원인을 규명하려는 것은 많은 限界가 있다고 밝히면서, 특히 精神病理學的 側面은 家族의 構造的 要因, 社會·文化的인 要因을 看過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社會心理學的 理論(Social-Psychological Theories)

社會心理學的 理論은 社會環境, 他人, 集團, 그리고 組織 및 個人과의

相互作用에 의하여 가정폭력을 이해하려는 관점이다. 즉, 특정개인이 對人關係에서의 挫折이나 學習過程, 타인의 態度, 集團 및 組織에 반영되는 자신의 태도 등에서 家庭暴力의 發生原因을 모색하는 특징을 지닌다 (Steinmetz, 1987). 이 이론은 많은 유형의 세분화된 이론이 있으나 本稿에서는 가정폭력의 발생요인을 비교적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다음의 다섯 가지 이론을 논의하고자 한다.

1) 挫折-攻擊理論(Frustration-Aggression Theory)

이 이론은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이 挫折되었거나 妨害를 받았을 때 개인은 가정폭력을 발생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個人的 心理狀態의 次元에서 뿐만 아니라 失職, 貧困 등 社會經濟的 次元의 機會構造 不平等 및 그 不當性에 대한 集合的 反應까지를 설명에 포함시킴으로써 문제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이론이다. 강은실(1991)은 子女養育에 대한 不確實性, 役割分擔과 觀心, 능력보다는 다른 근거에서 온 責任感, 家族葛藤 등의 요인이 가족에게 挫折을 주기 때문에 좌절-공격이론은 가족상황에 적합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공격이론은 공격적이 되게 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 없고, 어떤 사회에서는 挫折이 受動的이고 撤回的인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가진다. 또한 社會的 및 家族的 脆弱階層인 女性, 子女, 老人 등이 挫折感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攻擊的 行爲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說得力이 약하다 (강은실, 1991; 김문조, 1998).

2)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理論

(Social-Learning and Role-Modeling Theory)

‘개인의 학습 바탕은 원래 백지상태’라는 假定에서 출발하는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理論은 개인이 타인의 폭력행위를 觀察·模倣함으로써 공격

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고 함으로써 폭력행위를 하나의 '學習된 現象'으로 본다. 다시 말해 문제해결을 위한 手段으로 父 또는 母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고 배우며, 그들 자신이 부모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暴力의 役割을 模型化하게 된다는 것이다(Steinmetz, 1987).

이 理論은 '폭력에의 노출을 통한 學習된 暴力', '인정된 學習規範으로서의 暴力', 그리고 '役割模型으로서의 暴力' 등의 세 가지 측면이 있다(Bandura et al., 1961; Owens & Straus, 1975; Singer, 1971). 가정폭력에 이를 적용하면, 가정은 폭력의 訓練場으로서 제공된다. 즉, 가족은 役割模型을 제공하며, 어린 시절의 경험은 장래에 적절한 부모 및 부부의 役割開發에 이용된다는 의미이다. 결론적으로 이 理論은 가족간 또는 세대간의 가정폭력 轉移에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

3) 資源理論(Resource Theory)

개인은 資源(resources)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힘을 갖게 되지만 실제로 드러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지는 않으며, 오히려 資源이 不足하거나 不充分할 때 資源의 한 방편으로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資源理論의 관점이다(Goode, 1971). 따라서 가족 내에서 支配權을 가지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경제력, 사회적 지위, 인간관계 기술 등의 資源이 不充分하거나 不足할 때 이를 充足시키기 위하여 暴力이나 威脅 등의 강압적인 방법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資源理論이 家庭暴力의 핵심을 가족성원들 사이의 세력과 지배에 관한 것으로 본 점은 女權論的 立場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으나,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資源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성원이면 남편뿐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든(예를 들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발생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Goode, 1971). 다른 측면에서 Gelles(1976)는 資源을 적게 가진 사람은 가정폭력을 당할지라도 資源의 不足으로 인하여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폭력의 그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는 남편이 폭력을 휘두를지라도 부인의 資

源이 부족하면 할수록 남편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고 오히려 폭력의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여전히 같이 살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4) 交換理論(Exchange Theory)²⁾

Homans의 ‘分配的 公正性(Distributive Justice)’ 개념에 의하면 夫婦 및 父母-子女關係에서 개인은 반드시 報償을 極大化하고 費用을 줄여 最小化시키는 것은 아니며 結果에 있어 分配가 公正하면 된다. 즉, 자신이 投資한 것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자각할 때 公正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公平의 原則이 깨어졌을 때, 즉 한 개인이 期待한 報償을 받지 못하거나 期待와는 달리 罰을 받게 되었을 때 補償의 한 형태인 攻撃의인 行動을 하게 됨으로써 結果적으로 公平하게 된다는 것이다(Homans, 1961).

따라서 交換理論은 가정폭력이 金錢, 地位, 個人의 屬性과 유사한 방식에서 개인의 욕구를 얻기 위한 資源으로서 사용된다는 점에서 資源理論과 유사하다. 그러나 가족원간의 교환관계가 실패했을 때 힘(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이 理論은 夫婦關係뿐만 아니라 父母-子女關係, 老父母-成人子女關係 등에도 널리 적용될 수 있어 우리 사회가 점차 個人主義化됨에 따라 이에 기인된 가정폭력의 발생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5) 葛藤理論(Conflict Theory)

家庭暴力과 葛藤理論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Weber(1947)의 權威(authority)와 權力(power)의 개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특정 가족원이 權威는 갖고 있지만 어떤 행위를 요구할 힘(power)을 갖고 있지 못할 때, 즉 權威와 權力이 不一致를 보일 때 가정폭력이 야기된다는 것

2) 일반적으로 交換理論은 가족영역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 가족관련 학자들은 이 이론을 가정폭력에 적용함.

이다. 예를 들면, 10대 청소년의 부모가 자녀를 통제할 法的 權限(legal authority)을 소유할지라도 자녀가 反抗(rebel)하여 부모의 慾求가 수행될 정도의 힘(power)을 갖고 있지 못할 때 부모는 아동에게 暴力을 가하게 된다(Bachman, 1967; Steinmetz, 1971, 1974; Straus, 1971). 동일한 방식에서 갈등이론은 夫婦間의 葛藤 및 暴力을 설명하는 데도 유용하다(Allen & Straus, 1979; Kolb & Straus, 1974; O'Brien, 1971).

葛藤理論은 개인, 집단 및 조직의 合意와 調和보다는 葛藤의 管理에 초점을 두고 있다(강은실, 1991). 支配와 服從, 그리고 競爭의 目的에 의해 특징되어지는 모든 집단과 조직에서 葛藤의 존재는 不可避한 部分(inevitable part)이라는 점을 전제한다(Steinmetz, 1987). 가정폭력은 갈등관리를 위한 다른 방안이 실패했을 때 개인의 利益을 증대시키기 위해 자행되는 하나의 적합한 結果(outcome)이며, 강력한 樣式(mode)이라고 보기 때문에 葛藤理論의 觀點은 對決과 葛藤의 利益의 領域으로 볼 수 있는 家族體制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 有用性을 지닌다.

3. 社會文化的 理論(Sociocultural Theories)

이 理論은 가정폭력을 價值, 制度, 體系運營 등과 같은 社會的 構造나 秩序 등 巨視的 水準(macro level)에서 설명한다. 즉, 社會構造, 機能, 下位文化, 그리고 社會體制 등과 같은 巨視的 變因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의 社會心理的 側面에 內在하는 概念 및 過程을 看過하지 않아 學者들에 의해 널리 인정받고 있는 이론이다.

1) 構造的 理論(Structural Theory)

이 이론은 스트레스, 좌절(frustration), 그리고 박탈(deprivation)과 같은 暴力誘發要因(violence-producing factors)의 차별적 분포에 의하여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규명한다. 즉, 貧困階層, 多子女 家族, 그리고 人口密集地域에서 폭력이 보다 만연된다고 한다(Steinmetz, 1987). 따라서

열악한 社會經濟的 位置에 있는 개인은 상대적으로 보다 큰 좌절을 경험하며, 좌절이나 박탈에 대한 반응은 빈번한 폭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構造的 理論은 挫折-攻擊理論, 學習理論, 스트레스 등에 대한 學者의 意見을 統合한 것이며, 또한 가정폭력관련 다양한 이론들의 統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Steinmetz, 1987).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정교한 說明 및 豫測이 가능하도록 하는 家族關係의 主要 側面을 포함하지 못한다는 批判도 받고 있다(강은실, 1991).

2) 文化的 理論(Cultural Theory)

가정폭력이 社會構造 內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가족의 社會經濟的 位置에 따라 차별적 분포를 보이는 것은 폭력에 관련된 文化的 規範 및 價値의 機能때문이라는 것이 이 理論의 觀點이다(Wolfgang & Ferracuti, 1967). 즉, 剝奪感과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거나 갈등을 해결할 資源이 부족한 가족에서보다는 오히려 社會化 實踐(socialization practices)이 暴力文化에 젖어 있거나 下位文化에 속하는 가족에게서 가정폭력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Steinmetz, 1987).

폭력에 관한 文化的 觀點은 精神病理學的 理論에서 나타나는 것과 유사한 限界性을 갖고 있다. 첫째, 폭력적인 葛藤解消方法이 특정계층에만 普遍化된 現象인지 아니면 단지 그들에게 많이 露出되기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둘째, 폭력이 특정 地域사회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일반의 主류문화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만연되어 있으며, 단지 어떤 사회에서는 폭력이 감추어져 있거나 남성적인 行위로 적절히 合法化될 뿐이라는 것이다. 셋째, 이 이론은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의 폭력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다. 이 이론의 限界性은 많은 연구결과에서 실제로 나타난다. 폭력 또는 폭력의 위협은 社會體制에 기본적으로 편재해 있기 때문에 中·上流層보다 下流層 사람이 폭력을 더 많이 행사한다는 근거는 없으며, 오히려 가정폭력은 모든 社會階層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김

광일, 1988). 다만 중·상류층은 폭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轉換시켜 發散할 수 있는 기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이다(강은실, 1991).

3) 女權論的 理論(Feminist Theory)

여권론적 측면에서는 가정폭력을 家父長的 社會에서 여성에 대한 強制的 統制戰略이라고 본다(Yilo & Bograd, 1988; Kurz, 1993). 이 관점은 家父長的 家族의 歷史的 傳統, 男性性과 女性性的 現代的 構成, 그리고 여성이 폭력으로부터의 逃避를 어렵게 하는 社會構造的 制約 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다른 理論과는 매우 상이하다.

여권주의 학자들은 男女不平等에서 비롯되고, 가족 내에서 ‘男性支配, 女性服從’을 지속시키는 기제인 가정폭력이 남편, 부인 등 모든 개별 가족원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다른 가족원에 대한 폭력과는 그 의미에 있어서 매우 특징적임을 강조한다. 즉, 남성의 폭력은 여성에 대한 통제의 기본이며(Brownmiller, 1975), 남성은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데 익숙하므로 暴力과 性性(sexuality)은 社會構造的으로 形成된 것이라는 주장이다(Gelles, 1993). 예를 들면, 婦人의 男便暴力은 남편에 대한 자신의 支配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반면, 남편의 婦人暴力에는 부인에 대한 부당하고 일방적인 통제뿐만 아니라, Schechter(1988)의 견해와 같이 經濟的 剝奪, 性的 虐待, 脅迫, 恐怖霧圍氣 造成, 精神的 虐待, 孤立化 등도 동시에 수반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행사가 ‘여성에 대하여 統制力을 所有하고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統制力을 獲得하기 위해서인지’의 의문이 제기된다. 여성이 국가에 의해 조장된 經濟的 從屬으로 인해 폭력을 피할 수 없다고 하여 전자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으며,³⁾ 다른 한편으로는

3) 急進主義的 女權主義의 주장에 의하면, 국가가 폭력적인 남성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女性의 福祉에 대한 慾求를 지원하지 않아 여성은 경제적으로 남성에게 從屬되며, 가정폭력에 대한 國家의 消極的인 姿勢가 폭력을 持續시키는 주요 要因임.

O'Brien(1971)의 주장처럼 결혼생활에서 남성이 統制力을 획득하기 위해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른다고 하여 후자를 지지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女權論은 社會構造的 觀點인 “왜 階級으로서 남성은 여성에 대해 統制를 행사하는가”에 대한 적절한 해답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상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에 관한 諸 理論을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다양한 背景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폭력의 發生原因이 特定理論에 의하여 정확히 糾明될 수 없으며, 다양한 이론에서 제시하는 複合的 要因에 의해 발생됨을 보여준다. 이는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이 社會環境的 및 時代的 與件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本章에서 각 이론은 개별적으로 논의되었으나 가정폭력의 발생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많은 변인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Steinmetz(1987)는 [圖 1]과 같이 統合된 模型을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입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모형은 가정폭력의 循環的 性質(cyclical nature)뿐만 아니라 個人內的(精神病理學的) 理論, 社會心理學的 理論, 그리고 社會文化的 理論 등 세 유형의 理論間 상호작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인 個人內的 變數는 가장 내부의 圓(circle)에 나타난다. 사회적 및 개인적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기초한 社會心理學的 變數는 두 번째 단계인 三角形에서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四角形 內部는 사회에서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나타내는 社會文化的 理論과 관련된 變數들이다. 무엇보다도 이 모형은 社會文化的 狀況에서 個人的 및 社會心理學的 變數를 다루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며, 가정폭력을 설명하기 위해 광범위한 변수를 사용하고 있어 그 有用性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圖 1] 個人內的, 社會心理學的, 社會文化的 理論의 關係: 家庭暴力의 세 가지 水準 模型(Tri-level Model)

資料: Steinmetz, Suzanne K.,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Marvin B. Sussman and Suzanne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7.

Ⅲ. 家庭暴力 發生原因의 實際

Straus & Gelles(1986)는 家庭暴力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존재하여 온, 여러 문화에 걸쳐 팽배하다고 하였다. 또한 社會的 暴

력이 증가할 경우 가정폭력이 늘어나는 경향이고 가정폭력이 증가할수록 社會的 暴力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家庭暴力間에는 서로 聯關性이 있어 남편과 부인 사이의 폭력이 있는 경우 자녀에게도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하였다.

本 章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실시된 주요 가정폭력에 관련된 실증자료에 기초하여 그 발생원인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많은 조사자료 중에서 韓國刑事政策研究院 資料(1992, 1998), 韓國家庭法律相談所 資料(양정자·안정희, 1996),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실시된 전국규모의 실태와 피해자 중심의 조사를 병행한 韓國保健社會研究院 資料(김승권·조애저, 1998) 등을 활용하였다.⁴⁾

1. 男便에 의한 婦人暴力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이 ‘남편에 대한 利害不足 또는 不服從’ 때문에 발생된다는 경우가 가해남편의 57.3%, 피해부인의 4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媳宅과의 關係上 問題’도 가해남편의 20.6%, 피해부인의 30.5%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다. 이 외에도 ‘남편의 술버릇’, ‘사사건건 트집’, ‘아내로 인해 일이 풀리지 않음’, ‘아내의 품행이 좋지 않음’ 등도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남편의 家父長的 價値觀, 性格的 缺陷, 夫婦關係 維持技術의 不足, 그리고 飲酒 등이 폭력원인임을 보여준다(表 1 참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相談을 위해 來訪한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한 199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이 ‘강자임을 표현’하려는 의도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21.1%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남편의 ‘폭력적 성격’과 ‘술버릇’이 각각 18.4%, 17.8%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으며, 이 외에도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9.3%), ‘스트레스 풀기 위해’(8.7%)

4) 피해자에 관한 많은 조사자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밝히고 있어 이들 자료에 의한 설명으로 한국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을 실제적으로 파악하는데 충분하다고 판단됨.

〈表 1〉 『男便에 의한 婦人暴力』의 發生原因(1)

발생원인	(단위: %)	
	가해남편의 견해	피해부인의 견해
남편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불복증	57.3	48.0
시댁과의 관계상 문제	20.6	30.5
아내로 인해 일이 안 풀림	1.5	3.4
아내의 품행이 좋지 않음	2.8	2.7
특별한 이유 없이 술버릇	6.4	8.9
특별한 이유 없이 사사건건 트집잡음	11.4	6.5
계	100.0	100.0
(N)	(281)	(292)

資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서도 부인을 폭력하는 원인으로 나타나 충격적이었다(表 2 참조). 따라서 남성의 性的 優越意識과 家父長的 意識構造가 가정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임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成長過程에서 형성된 가해자의 暴力的 性品 또한 가정폭력의 한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와 같은 주요 폭력원인이 가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유사한 樣態를 보여주고 있어 우리 사회에서 남편의 부인폭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2〉 『男便에 의한 婦人暴力』의 發生原因(2)

발생원인	가해남편의 연령					전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강자임을 표현	31.2	15.3	21.7	27.3	40.0	21.1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	6.2	12.2	7.5	7.3	10.0	9.3
스트레스 풀기 위해	-	13.0	5.8	9.1	-	8.7
가부장적 의식 때문	18.8	14.5	14.2	12.7	20.0	14.5
원래 폭력적임	12.5	20.6	16.7	20.0	10.0	18.4
술버릇	12.5	22.1	16.7	14.5	-	17.8
기타	18.8	2.3	17.5	9.1	20.0	10.2
계(N)	100.0 (16)	100.0 (131)	100.0 (120)	100.0 (55)	100.0 (10)	100.0 (332)

資料: 양정자·안정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家庭暴力 發生原因의 理論과 實際

가장 최근에 실시된 김승권 외(1998)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원인은 남편의 ‘술버릇’이 29.0%로 가장 높았으며⁵⁾, ‘경제적 문제’(16.5%), 남편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12.0%),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차이’(10.8%) 등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 외에도 남편의 오해, 의치증, 사소한 말다툼에 의한 확대, 시대문제, 남편의 이성문제에 의한 다툼의 확대, 상호 이해 부족 등이 있었다(表 3 참조). 따라서 個人內的 理論의 精神病理學的 側面에서 폭력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가정폭력의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보다 세심한 대책이 필요함을 示唆하는 것이다. 또한 失職, 經濟的 貧困, 家族葛藤에 의한 폭력도 상당히 나타나 挫折-攻擊理論, 資源理論, 葛藤理論, 構造的 理論 등의 타당성을 엿볼 수 있다.

〈表 3〉 『男便에 의한 婦人暴力』의 發生原因(3)

(단위: %)

발생원인 ¹⁾	비율
남편의 오해	4.8
부인의 잘못	0.6
성격차이	10.8
남편의 술버릇	29.0
경제적 문제	16.5
남편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12.0
사소한 말다툼	4.2
의치증	4.8
남편의 이성문제	3.6
시대문제	4.2
상호 이해부족	3.0
기타 ²⁾	6.6
계(N)	100.0(334)
가해남편 1인당 평균 폭력원인수	2.1

註: 1) 폭력원인이 있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2) 기타는 다른 가족원의 잘못, 사회적 이유, 자녀문제, 스트레스 등임.

資料: 김승권·조예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5) 조사과정에서 다른 원인에 의해 음주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제외하였으며, 다른 이유가 없이 단지 음주를 하였기 때문에 폭력적이 된 경우만을 가해자의 ‘술버릇’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것으로 취급함.

일반적으로 教育水準은 社會經濟的 地位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指標이기 때문에 가해자인 남편과 피해자인 부인의 교육수준을 비교하면 資源理論이 주장하는 “남편이 부인보다 社會經濟的 地位가 낮고 資源을 적게 가진 경우 가정폭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견해가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檢證할 수 있다.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발생은 동일한 학력수준인 부부가 66.2%로 가장 많았으며, 가해자인 남편보다 피해자인 부인의 학력수준이 높은 경우는 15.0%, 반대로 낮은 경우는 18.8%로 나타났다(表 4 참조).

그런데 한국사회에서의 結婚은 대부분 同質婚(homogeneous marriage)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남편과 부인의 학력은 대부분 동일하거나 남편이 다소 높다는 점(김승권, 1997)을 고려하면,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15.0%가 『高學力의 婦人-低學力의 男便』간에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은 資源을 적게 가진 남편이 不足한 資源의 補充을 위해 또는 資源의 한 手段으로서 부인에게 폭력을 사용하게 되어 資源理論을 지지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表 4>는 交換理論의 側面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는 資源을 많이 가진 일방이 不足한 資源 및 勢力을 가진 상대방에게 다양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로 『고학력의 가해자(남편)-저학력의 피해자(부인)』관계가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18.8%나 있음에서 알 수 있다.⁶⁾ 최근 적은 결혼예물에 기인된 婦人 또는 子婦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이 좋은 예이다.

<表 4> 『男便에 의한 婦人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 (단위: %)

가해자(남편)	피해자(부인)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21.4	6.5	2.0
고등학교	10.4	35.1	6.5
대학 이상	0.6	7.8	9.7

資料: 김승권·조애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6) 뒤에서 설명되는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에서는 『고학력 가해자(부인)-저학력 피해자(남편)』관계가 5.4%임.

2. 婦人에 의한 男便暴力

부인이 남편에게 폭력을 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性格差異'(25.6%)였으며, '經濟的 問題'(20.9%)와 가해자인 부인의 '異性問題'(14.0%)도 주요 원인이었다. 이 외에도 '부인의 오해와 잘못', '부인의 술버릇',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부인의 自激之心 및 劣等感' 등도 폭력발생의 원인으로 나타났다(表 5 참조). 그런데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의 약 45%가 남편의 폭력에 대한 부인의 맞대응에 의한 것이어서 남편의 폭력이 先行되었음을 알 수 있다(김승권·조애저, 1998).

〈表 5〉 『婦人에 의한 男便暴力』의 發生原因

(단위: %)

발생원인	비율
부인의 오해	9.3
남편의 잘못	4.7
성격차이	25.6
부인의 술버릇	9.3
경제적 문제	20.9
부인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2.3
사소한 말다툼	4.7
의부증	-
부인의 이성문제	14.0
상호 이해부족	-
기타 ²⁾	9.3
계(N)	100.0(43)
가해부인 1인당 평균 폭력원인수	1.2

註: 1) 폭력원인이 있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2) 기타는 다른 가족원의 잘못, 사회적 이유, 시댁문제, 자녀문제, 스트레스 등임.

資料: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앞에서 살펴 본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경우는 '男便의 異性問題'로 인한 경우는 3.6%에 불과하였으나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은 가해자인 '婦人의 異性問題'가 폭력발생원인의 14.0%나 되어 일부 既婚女性이 異性問題로 인하여 葛藤을 심하게 겪고 있으며, 심지어 남편의 離婚要求

를 유도하는 목적의 폭력유발이 있는 것으로 짐작케 한다.⁷⁾ 또한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의 이유가 ‘술버릇’인 경우는 9.3%였는데, 이는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발생원인 중 ‘술버릇’이 가장 큰 비중(29.0%)을 차지한 것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女性 飲酒가 家族問題에 영향을 주는 측면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低學力の 婦人-高學力の 男便』간의 폭력이 27.0%나 되었다(表 6 참조). 이는 資源理論의 주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낮은 社會·經濟的 地位를 가진 부인이 不足한 資源을 보완하기 위하여 높은 지위에 있는 남편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Goode(197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가족 내에서 支配權을 가지려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만한 資源이 없을 경우 가정폭력이라는 強壓的인 方法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女權論的 立場과 일치하는 측면도 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남성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相對的으로 資源을 적게 가진 모든 사람이 가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資源이 不足한 부인이 과연 남편에게 폭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편의 폭력에 대한 맞대응으로 발생된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이 많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폭력이 資源理論에 의하여 발생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不平等한 交換關係에 의하여 資源이 不足한 부인에게 가하는 남편의 심한 폭력에 견디지 못한 婦人의 憤怒로 이해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의 경우도 資源이 不足하거나 劣勢에 있는 부인을 무시하는 폭력인 『고학력 가해자(부인)-저학력 피해자(남편)』 관계가 5.4%

7) 부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많은 남편이 부인의 外道로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子女養育의 어려움 때문에 부인을 용서하고 家族生活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예가 많음. 심지어는 부인이 남편의 폭력을 誘導하여 가정폭력관련 특별법에 의하여 남편을 처벌하고 離婚을 통한 慰藉料를 확보하려는 경우도 있었음.

가 있었다. 이는 失職 등 無能力한 男便에 대한 婦인의 폭력이 좋은 例인데, 남편에 의해 발생하는 이러한 유형의 폭력(18.8%)에 비하면 <表 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表 6> 『婦人에 의한 男便暴力』의 加害者 및 被害者의 教育水準 (단위: %)

가해자(부인)	피해자(남편)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대학 이상
중학교 이하	8.1	8.1	-
고등학교	2.7	43.3	18.9
대학 이상	-	2.7	16.2

資料: 김승권·조예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3. 其他 家族員間 暴力

夫婦 또는 父母-子女關係가 아닌 兄弟·姉妹 등 『其他 家族員間의 暴力』의 原因을 살펴보았다. 김승권 외(1998)의 연구결과는 ‘술버릇’이 가장 높은 36.0%로 나타나 個人內的 理論이 주장하는 폭력발생이 至大함을 보여준다. 가해자의 ‘自激之心 또는 劣等感’도 11.8%로 비교적 높았으며, 이 외에도 ‘經濟的 問題’, ‘가해자의 誤解’, ‘相互利害 不足’, ‘사소한 말다툼’, ‘性格差異’, ‘學業成績 低下’, ‘가해자의 異性問題’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表 7 참조). 따라서 資源理論, 交換理論, 葛藤理論, 構造的 理論 등에서 제기되는 資源不足, 失職, 家族關係維持 技術不足 등에 기인되거나 訓育次元에서 폭력이 자행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表 7〉 『其他 家族員間 暴力』의 發生原因

(단위: %)

발생원인 ¹⁾	비율
가해자의 오해	9.2
피해자의 잘못	-
성격차이	3.1
가해자의 술버릇	36.0
경제적 문제	9.6
가해자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11.8
사소한 말다툼	5.3
가해자의 이성문제	1.3
상호 이해부족	5.3
학업성적 저하	3.1
기타 ²⁾	15.4
계(N)	100.0(228)
가해자 1인당 평균 폭력원인수	1.4

註: 1) 폭력원인이 있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2) 기타는 다른 가족원의 잘못, 사회적 이유, 자녀문제, 스트레스 등임.

資料: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4. 兒童에 대한 暴力

아동폭력에 관한 많은 연구는 葛藤的 및 專制的 雰圍氣가 높거나 夫婦不和가 많은 가족에서 아동에 대한 폭력이 많이 발생함을 보여주었다 (고성혜, 1992; 노치영, 1988; 소속희, 1986; 연진영, 1992). 이는 가족관계의 근간이 되는 부부간에 不和가 있으면 다른 가족원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家族雰圍氣를 葛藤的으로 이끌어 자녀가 身體的, 心理的으로 萎縮되고 상처를 받으며, 심지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됨을 의미한다 (연진영, 1992).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에서 父의 子에 대한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多重回歸方法의 位階的 分析(hierarchical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父의 子에 대한 폭력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父의 자기 統制力’이었으며, 이 외에도 부모의 자녀에

대한 愛情이 낮을수록, 外的 統制가 높을수록, 그리고 主觀的 家族階層 位置가 낮을수록 父의 子에 대한 폭력가능성이 높았다.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에 대한 폭력』의 주요 발생원인은 가해자의 ‘술버릇’이 30.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문제’ 14.5%, ‘가해자의 자격지심이나 열등감’ 11.2%, ‘가해자의 오해’ 6.8% 등도 비교적 많았다. 이 외에도 ‘사소한 말다툼’, ‘상호 이해부족’, ‘자녀의 잘못’ 등도 폭력이 유로 제시되었다(表 8 참조).

〈表 8〉 『兒童에 대한 暴力』의 發生原因

(단위: %)

발생원인 ¹⁾	비율
가해자의 오해	6.8
아동의 잘못	3.3
성격차이	-
가해자의 술버릇	30.1
경제적 문제	14.5
가해자의 자격지심 및 열등감	11.2
사소한 말다툼	4.6
가해자의 이성문제	-
상호 이해부족	3.8
아동의 학업성적 저하	1.2
기타 ²⁾	24.5
계(N)	100.0(607)
가해자 1인당 평균 폭력원인수	1.7

註: 1) 폭력원인이 있다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복응답임.

2) 기타는 다른 가족원의 잘못, 사회적 이유, 스트레스 등임.

資料: 김승권·조예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가정폭력 가해자의 15.9%가 성장시 폭력을 目擊 또는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별로는 남성(18.2%)이 여성(10.5%)보다 높은 暴力目擊 및 經驗率을 보였다(表 9 참조). 이는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남성이 높은 비

을⁸⁾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社會學習 및 役割模型理論의 주장처럼 兒童에 대한 暴力은 代를 이어 영향을 미쳐 『暴力의 惡循環』(vicious circle of violence)을 낳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폭력유형으로 사료된다.

〈表 9〉 兒童暴力 加害者の 性別 家庭暴力 目擊 및 經驗與否

(단위: %)

성	목적	경험	목적·경험	모름	계(N)
남성	6.8	2.3	9.1	81.8	100.0(44)
여성	10.5	-	-	89.5	100.0(19)
전체	7.9	1.6	6.3	84.1	100.0(63)

資料: 김승권·조애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IV. 韓國 家庭暴力의 發生原因에 대한 論議

家庭暴力의 發生原因에 관한 다양한 理論과 實證的 資料를 살펴보았다. 각 분야의 學者들이 개발한 많은 理論들은 가정폭력발생의 원인구명을 위하여 考案된 것으로 나름대로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으나, 한 사회의 폭력발생 원인을 특정이론에 의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限界를 가진다. 이는 가정폭력이 매우 複合的이고 相異한 側面이 있을 뿐만 아니라 諸 理論에서 제기하고 있는 家庭暴力 原因이 부분적으로 重複되거나 상호 밀접하게 連結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폭력원인은 특정사회의 個人的, 家族的, 그리고 社會的 環境과 持續的인 社會變化에 따라 相異하게 나타나며,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家族關

8) 전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폭력의 가해자 역시 父 77.5%, 母 16.6%, 그리고 기타 가족원 5.9%로 나타났다(김승권·조애지, 1998).

係 特性에 따라 理論的 背景을 달리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本 章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가정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理論的 背景과 實證的 資料를 연결하여 논의한다. 특히 이들 다양한 발생원인을 優先順位에 따라 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의 예방을 위한 정부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단체의 사업설정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원인을 우선적 순위에 따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家父長制的 價値觀

女權論的 立場인 社會 및 家族 內에서의 家父長制的 價値觀이 가정폭력 발생의 가장 根本的 原因으로 판단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자료(表 1 참조)에 의하면, 家父長的 價値觀에 기초하여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볼 수 있는 ‘남편에 대한 이해부족 또는 불복종’(가해남편의 57.3%, 피해부인의 48.0%)과 ‘아내로 인해 일이 안 풀림’(가해남편의 1.5%, 피해부인의 3.4%)이 폭력의 가장 주요 요인이었다. 더군다나 ‘이유 없이 사사건건 트집잡음’(가해남편의 11.4%, 피해부인의 6.5%)도 가해자의 潛在的 意識에 이러한 觀念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법률상담소의 자료(表 2 참조)는 家父長的 價値觀에 의하여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14.5%임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러한 價値觀의 다른 형태인 ‘강자임을 표현’(21.1%) 또는 ‘때려서라도 가르치려고’(9.3%) 등도 있었다. 따라서 家父長的 價値觀을 배경으로 한 『남편에 의한 부인 폭력』이 44.9%나 차지하고 있어 이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 자료는 傳統的 意識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男女平等意識이 비교적 높은 저연령층에서도 家父長的 價値觀에 의한 폭력의 발생이 유사한 수준에 있어 향후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가치관에 기인된 가정폭력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극히 우려된다.

가장 최근에 실시된 김승권 외(1998)의 연구결과는 앞에서 살펴본 두 자료에서보다는 가부장적 가치관에 의한 폭력의 발생비율이 낮게 나왔다. 즉, 가부장적 태도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남편의 오해’(4.8%)와 ‘부인의 잘못’(0.6%) 등에 의한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은 비교적 낮았다(表 3 참조).⁹⁾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1997년말 이후 한국의 經濟危機 克復過程에서 失職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부양의무의 불이행 등에 연유하는 가정폭력이 증가함으로써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성격을 가진 폭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이지 이러한 가치관에 의한 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한편 『아동에 대한 폭력』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김승권 외(1998)의 연구에서도 家父長的 價値觀에 의하여 폭력이 발생되었다고 응답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子女의 所有意識이 가해자의 사고관념 저변에 강하게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西歐와는 달리 우리 사회에서 아동폭력의 가해자가 父인 경우가 77.8%나 된다는 점은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김승권·조애저, 1998). 또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외적 통제($\beta=0.12, p<.01$)가 아동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8)의 연구결과도 이를 지지하는 것이다.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性的 不平等 및 家父長制的 價値觀은 가정폭력 발생원인의 핵심이다. 특히 이는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한 여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가장 근원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가부장제적 테러리즘의 원인이다. 男性優位の 思考方式, 여성의 人格과 權利에 대한 意識의 未成熟, 여성의 主體性和 獨立性에 대한 思考의 缺如 등 家父長制的 觀念에 입각한 남성에 의해 자행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이에 해당된다(심영희, 1996). 통상적인 가정폭력과는 달리 가부장제적 테러리즘에 의해 자행되는 가정폭력은 강제적 통제전략이 보다 심

9) 본 조사에서는 ‘家父長的 價値觀’에 의한 폭력발생여부를 응답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하여 여성들에게 ‘매맞는 아내 後遺症’(battered women syndrome)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주고 또한 주기적, 체계적, 반복적 성격 때문에 일단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심영희, 1996). 더군다나 이러한 價値觀은 단기간에 바뀔 수 있지 않으며 社會構造的 및 制度的인 變化와 함께 長期的이고 體系的인 方案의 摸索이 필요하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2. 加害者의 飲酒癖

加害者(통상적으로 男便, 父, 兄弟)의 飲酒癖이 한국 가정폭력 두 번째 주요 發生要因이다. 韓國刑事政策研究院(1992)의 연구결과는 남편의 ‘술버릇’에 의하여 부인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해남편의 6.4%, 피해부인의 8.9%임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利害不足 또는 不服從’과 ‘媳宅과의 關係上 問題’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또한 韓國家庭法律相談所 資料의 분석결과(양정자·안정희, 1996)에서는 남편의 ‘술버릇’에 의해 발생하는 부인폭력이 17.8%나 되었는데, 이는 30대가 22.1%로 가장 높았고, 40대 17.5%, 50대 14.5%, 20대 12.5%로 연령에 따른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50대 이하의 전체 연령층에서 발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表 2 참조).

특히 최근에 실시된 韓國保健社會研究院의 연구결과(김승권·조애저, 1998)에 의하면, 가해자의 ‘술버릇’에 기인된 폭력발생이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의 36.0%, ‘아동에 대한 폭력’의 30.1%, 그리고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29.0%나 되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었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 발생요인은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에서도 다소 나타나(9.3%) 飲酒에 의한 가정폭력이 한국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表 5~表 7, 表 9 참조).

결국 飲酒癖에 의한 가정폭력은 ‘남편의 부인폭력’에서는 家父長制的 價値觀 다음으로 주요 발생원인이고,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과 ‘父의 아동폭력’에서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며, 그리고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

에서도 하나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가해자의 飲酒에 의한 폭력발생은 個人內的 理論의 側面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가해자의 性格的 缺陷, 스트레스, 夫婦不和, 家族葛藤 등 다양한 다른 요인과 相互作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가해자의 飲酒癖에 의하여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과도한 음주가 인간의 행동을 自制不能케 함으로써 타가족원의 생명에 위협을 주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도한 음주에 의하여 가정폭력이 발생될 경우 피해자의 신속한 隔離·保護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해서도 타가족원과의 強制的 隔離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失職, 經濟難 등에 의한 스트레스와 家族葛藤

失職, 經濟難 등으로 적절한 家族扶養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누적과 家族間의 葛藤增幅이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세 번째 주요 발생원인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가정폭력은 최근 한국 사회의 經濟危機 克服過程에서 많은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승권 외(199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家庭經濟의 어려움으로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이 발생된 경우가 16.5%로 상당히 높았으며, 失職, 經濟的 無能力 등으로 인한 남편의 『自激之心 및 劣等感』에 의해서도 12.0%나 되어 資源理論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資源의 不足에 기인된 폭력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의 연구는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의 20.9%,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의 9.6%가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폭력이 발생되고 있음을 보였다. 특히 이와 같은 경향은 『아동에 대한 폭력』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14.5%가 『經濟的 어려움』에 의하여, 11.2%가 『自激之心 및 劣等感』에 의하여 아동폭력이 발생되고 있어 個人的 要因에 의하여 보다는 家族 및 社會構造的 要因에 의한 가정폭력이 우리 사회에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를 분석한 연구(양정자·안정희, 1996)도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 社會的 및 家族 內에서 발생하는 각종 스트레스에 의하여 『남편의 부인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8.7%로 나타났다(表 2 참조).

가정폭력은 가족이 경험한 스트레스의 數가 많을수록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¹⁰⁾ 또한 貧困, 低所得, 失職 등은 그 자체로서 스트레스의 要因이 되며, 다른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適應力을 弱化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들 요인은 다른 유형의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가족원들의 不滿과 挫折을 고조시키며, 이로 인한 葛藤과 敵愾心이 他家族員에게 轉移되어 폭력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이선이, 1995). 이는 가정폭력에 관련된 挫折-攻擊理論, 構造的 理論, 葛藤理論 등에 의해서 共感帶를 형성하고 있는 폭력발생요인이다.

가정폭력은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계층에서 발생하지만, 階層別로 동일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社會的 및 經濟的 資源이 빈약한 가족일수록 발생가능성이 높다. 즉, 所得水準이 낮은 가족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며, 父母의 職業的 地位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특히, 아버지가 실직자이거나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 경우 婦人 및 兒童에 대한 폭력의 가능성이 높다는 외국의 연구결과도 있다(Straus et al., 1980).

4. 成長時 暴力의 目擊 및 經驗에 의한 攻擊的 性向 形成

成長過程에서 폭력을 目擊 또는 經驗함으로써 형성된 加害者 個人의 攻擊的 性向이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네 번째 주요 요인이며, 이는 社會的 學習效果와 役割模型化로 다양한 측면의 家族問題를 해결하는 한 方式으로 가정폭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자료의 분석결과(양정자·안정희, 1996)에 의하면,

10) Straus et al.(1980)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해 동안 가족스트레스를 10가지 경험한 가족은 가족스트레스를 한 가지 경험한 가족과 비교할 때 가정폭력의 발생률이 10배나 높아 가족스트레스와 가정폭력은 정비례한다고 함.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은 가해자인 남편의 ‘원래 暴力的인 性品’ 때문이라고 한 경우가 18.4%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비록 김승권 외(1998)의 연구는 이러한 응답문항이 없어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해자의 病理的 屬性이 전반적으로 내재해 있음이 추론된다. 이러한 요인은 個人內的 理論의 좋은 例로서, 어렸을 때 몹시 支配的이고 차가운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 성장하여 婦人을 虐待하거나 暴力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Shultz, 1960). 즉, 어릴 때 依存慾求가 충족되지 못하였다가 결혼후 婦人에게서 그러한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挫折되었을 경우 攻撃的인 行動으로 表出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해자의 性格的 및 情緒的 缺陷을 가진 사람은 당면한 가족문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轉嫁하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김양희, 1998).

특히 아동폭력 가해자의 15.9%가 성장과정에서 가정폭력을 目擊 또는 經驗한 것으로 나타났는데(김승권·조애저, 1998), 이는 외국의 많은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즉, 어렸을 때 暴力的이거나 虐待를 경험한 아동의 경우 成人이 되어 子女와 婦人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어 暴力이 暴力을 낳고 世代를 넘어서 暴力은 轉移되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Kalmuss, 1984; Walby, 1990). 또한 加害者들이 非加害者에 비해 어렸을 때 자신이 직접 暴力의 對象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間接經驗하는 등 전반적으로 폭력이 빈번한 家族的 環境에서 성장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Fagan et al., 1983; Kalmuss, 1984; Owens & Straus, 1975; Straus et al., 1980). Gelles는 남편의 부인학대는 성장과정에서 학습된 결과로 보았으며 가정은 폭력에 대한 規範, 價値, 策略, 技術 등을 학습하는 訓練場이라 하여 社會學習 및 役割 模型理論이 가정폭력을 설명하는 데 적절함을 보여주었다(강은실, 1991).

이와 같은 국내·외의 실증적 연구결과는 한 마디로 가정폭력의 反復 및 轉移를 나타내는 것으로 暴力은 暴力을 낳는다(violence begets violence)는 의미이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함으로써 폭력사용방법과 폭

력이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되는지를 학습하면서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폭력을 생활에서 활용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릴 때 가족성원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되어 모두 家庭暴力의 加害者가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어릴 때 폭력의 경험이 없다고 후에 加害者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가정폭력연구의 공통된 결과는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다(Fagan et al., 1983; Straus et al., 1980).

5. 性格差異와 家族關係技術의 不足

家族員間의, 특히 夫婦間의 性格差異와 家族關係技術의 不足이 가정폭력을 발생시키는 다섯 번째 요인으로 판단되며, 현대사회의 多樣하고 複雜하며 利益對決的인 家族關係가 지속적으로 增大함으로써 이에 기인되는 가정폭력은 점차 증대될 것이다.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한 연구는 피해부인의 30.5%가 ‘媳宅과의 關係上 問題’가 폭력의 주요원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夫婦의 性格差異와 관계되는 ‘남편에 대한 利害不足 또는 不服從’과 ‘특별한 이유없이 사사건건 트집잡음’이 폭력의 주요원인이라고 한 피해부인이 각각 48.0%, 6.5%나 되어 夫婦 및 姑婦間의 性格差異 및 問題認識의 乖離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技術不足이 가정폭력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한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최근의 연구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가정폭력의 주요 발생요인으로 제기하였다. 부부의 ‘성격차이’ 때문에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는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10.8%,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의 25.6%,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의 3.1%나 되었다. 또한 이와 유사한 발생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부간의 사소한 말다툼’, ‘시댁문제’, ‘부부간의 상호이해부족’ 등에 의한 가정폭력의 발생은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의 16.2%, 『부인에 의한 남편폭력』의 14.0%,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의 19.8%, 그리고 『아동에 대한 폭력』의 11.4%나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족원, 특히

부부의 노력이 절실함을 보여주었다(김승권·조애저, 1998).

김병후(1996)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성격적 결함보다는 스트레스와 結婚適應過程 등의 '狀況的 및 關係的 變數(situational and relationship variables)'가 가정폭력발생에 더 큰 기여를 한다고 하였다(김병후, 1996). 예를 들면, 부부폭력은 憤怒調節(anger management), 스트레스 調節(stress management), 그리고 意思交換(communication) 등에 대한 능력을 가리키는 영역인 측정 가능한 對人關係技術의 缺乏(specific and measurable skill deficit)에 의해 초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부관계유지 기술의 부족에 의한 폭력의 발생은 다른 가족원, 즉, 부모-자녀간, 형제자매간, 그리고 노부모-성인자녀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작용될 것이다.

6. 子女에 대한 過多한 投資와 報償의 期待

자녀에 대한 過多한 投資와 報償의 期待, 그리고 과도한 자녀훈육이 兒童暴力의 誘發要人이며, 특히 한국사회에서 자식에 대한 父母의 期待와 자식을 통한 代理成就是 訓育次元의 아동폭력이 社會的으로 容認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

아동의 잘못이나 나쁜 버릇, 그리고 學業成績의 低下 등으로 폭력을 가하는 경우가 전체 『아동에 대한 폭력』의 4.5%, 『기타 가족원간의 폭력』의 3.1%로 나타났다(김승권·조애저, 1998). 이는 交換理論과 挫折-攻擊理論의 입장에서 설명될 수 있는 폭력발생원인이다. 다시 말해 交換關係에서 볼 수 있는 가정폭력의 한 측면으로 互惠性, 代案, 分配 등에 있어서 公平性의 概念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投資 및 期待와 자녀의 精神的 및 物質的 報償 등의 差異에서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한 가정폭력의 발생은 家父長制的 觀念이 만연되고, 자녀를 부모의 所有物로 여기며, 아버지가 權力을 행사하는 경향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팽배한다. 또한 核家族化 함에 따라 어린이 양육에 관한 한 부모의 권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기관의 개입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면도 아동폭력의 발생을 조장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아동에 대한 부모의 폭력이 體罰이나 訓育의 의미를 가질 때에 그것은 필요하고 정당하다는 관념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¹¹⁾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훈육의 한 방편으로 體罰을 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정상적이고 필요하며 장래에 아동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볼 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될 수 있다고 지적된다(조병은, 1993). 이러한 인식은 가정폭력의 妥當性을 社會的으로 認定하고 正當化시키는 手段으로 작용한다. 또한 경찰이나 사법부 관계자나 가족외부의 일반인들이 신체적인 상해가 심각하지 않는 한 가정폭력은 남이 간섭하지 말아야 할 私的인 問題라고 간주해 버리는 경향도 가정폭력의 正當性이 인정되는 것의 바탕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는 폭력을 금지하는 規範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가정폭력만은 끈질기게 예외로 간주될 소지가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관념이 家庭暴力을 後援하는 文化的 規範으로 작용하게 된다(Garbarino, 1976).

이상에서 제시된 한국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외에도 많은 다양한 원인이 있다. 또한 제시된 원인들도 실제 발생한 폭력행위의 설명에 부분적으로만 기여하며, 단지 說得力이 강한지 아니면 弱한지가 다를 뿐이다. 그런데 이들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각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 이는 “家庭暴力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Gelles & Cornell, 1985). 즉, 性不平等, 私的 空間으로서의 孤立化, 社會的 統制의 缺如, 暴力을 寬容하는 社會的 規範 등이 가정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與件을 造成한다는 것이다.

11) 흔히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려면 때로는 사랑의 매를 들어야 한다”고 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음.

V. 結論 및 政策的 提言

가정폭력에 관련된 理論이 다양하듯이 發生원인도 많이 발견되었다. 더군다나 가정폭력의 原因은 서로 相互作用하며 複合的으로 影響을 미치며, 이들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政策은 豫防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폭력자체의 發生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번 發生한 폭력이 다시 再行되지 않도록 하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가정폭력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정폭력의 實態와 結果”에 중점을 둔 視覺을 “폭력의 發生原因”을 糾明하고 除去하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에 의한 가정폭력 發生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家父長的 思考觀念의 拂拭을 위한 노력이 社會 및 家族 內에서 體系的으로 널리 이루어져야겠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남편에 의한 부인폭력』과 『父에 의한 자녀폭력』을 예방하고 한국 가정폭력의 가장 우선적 發生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家父長制的 文化의 打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스스로도 이러한 意識으로부터 脫피되어야겠지만, 특히 아직까지도 한국 남성은 강한 家父長制的 思考方式에 젖어 있으며, 남성(男便 및 父)에 의한 가정폭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남성들은 여성을 지배하려는 의식을 버리고 同伴者이며 人格體로서 대하는 자세를 定立시키고 傳統的 性役割 意識을 타파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식을 부모의 所有物로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하여 平等意識을 鼓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마스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被害者를 비롯한 전체 家族員의 保護를 위하여 加害者의 隔離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社會福祉의 對策이
 긴요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한국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중 ‘飲酒’에 의한
 경우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므로 가해자를 신속히 격리하여 보다 심
 각한 가정폭력으로의 進展을 豫防하고 다른 家族員을 保護하는 일이 가
 장 급선무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발생초기에 신속한 대처와 엄격한 법
 집행이 있어야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가해자와 피해자 가족원을 격리함
 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하여야 할 점은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일시적 감정분노차원의 가정폭력은 短期隔離와
 전문상담치료 등에 의하여 가정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常習的인 暴力의 경우 短期間의 隔離로는
 再發可能性이 있으므로 發生原因에 따른 차별화된 대책이 효과적이다.

셋째, 加害者에 대한 『外來治療命令制』 導入이 필요하다. 個人的 缺陷
 인 精神疾患과 알코올 및 藥物의 中毒에 기인된 가정폭력은 加害者 治
 療에 의하여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醫藥的 및 精神的 處置를 위한 『外來治療命令制』를 도입하여야겠다. 특
 히, 의처증, 의부증,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의 정신질환에 의한 가정폭
 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강제입원 및 치료가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¹²⁾

넷째, 家族關係의 圓滿한 維持와 家族葛藤의 效果의 管理를 위한 多樣
 한 技術의 開發 및 普及이 있어야겠다. 가정폭력은 家族關係 內에서 발
 생된다. 즉, 夫婦暴力은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兒童虐待는 보
 호자인 부모와 피보호자인 아동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며, 老人虐待도 자
 녀-노부모간의 상호관계에서 비롯된다. 부모가 자녀를 통하여 代理滿足
 을 얻으려는 경우에 폭력이 자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따라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며, 부부로서의 禮儀를 갖추는 등
 바람직한 夫婦關係를 維持하고, 理想的인 子女養育方式의 습득을 통하여

12) 정신보건법에는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 및 타인에게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있는 환자의 강제입원규정이 있음.

부모-자녀관계를 강화하고, 老父母 奉養의 價値觀이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원만한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겠으며, 특히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각종 사회교육기관을 활용한 신혼부부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 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각종 복지기관 및 민간단체에서 실시되면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人間尊重의 價値規範 定着과 暴力許容의 社會文化規範의 改善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폭력이 추방되고, 인간을 존중하는 價値體系가 확립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여자와 북어는 두들겨야 부드러워진다”, “미운 자식 떡하나 더 주고, 예쁜 자식 매하나 더 준다”는 등의 표현은 조속히 사라져야 하는 대표적 通念이다. 이를 위해서는 大衆媒體의 역할이 중요하다. 暴力文化와 性差別을 助長하는 대중매체에 대한 規制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문화와 價値觀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아동이 쉽게 폭력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폭력에 둔감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폭력을 조장하고 인간존중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대중매체의 행위에 대한 감시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폭력을 허용하는 社會的 環境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불식되어야 한다.

여섯째, 家庭暴力의 弊害에 대한 弘報·啓蒙의 強化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 가정폭력의 발생원인에서 보았듯이 경우에 따라서는 사소한 이유에 의하여 폭력이 발생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그 강도는 더욱 심해지며, 반대로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혼, 자살, 가해자 살인 등을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김승권·조애저, 1998). 또한 가정폭력은 私的인 事件으로 看做되거나 體罰 및 訓育으로 正當化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의 엄청난 危害性을 널리 홍보하여 우리 가족 내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參 考 文 獻

- 강은실, 『가정폭력에 대한 이론적 고찰』, 『고신대학의학부 논문집』, 제7권 제1호, 고신대학교, 1991.
- 고성혜, 『아동이 평가한 부모의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27권 제3호, 대한가정학회, 1992.
- 곽영숙·홍강의, 『아동학대의 개념과 원인』, 김광일 편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1988.
- 김광일 편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1988.
- 김문조, 『한국가정폭력의 사회문화적 배경』,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지움자료,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 김병후, 『가정폭력』,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 김승권, 『The Role of Working Women in Determining Family Class Position』, 『보건사회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 김승권·조애저,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 김양희, 『부부간 폭력과 가정생활 및 청소년』, 『가정폭력과 청소년 심포지움』, 청소년보호위원회, 1998.
- 노치영,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소숙희, 『부모의 스트레스가 아동학대에 미치는 영향』, 성심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심영희, 『“가부장제적 테러리즘”의 발생 유지기제와 사회적 대책』,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 양정자·안정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창구를 통해 본 가정폭력실태조사』,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996.

연진영, 『아동학대의 실태 및 영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이선이, 『가족의 위기』,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국사회학회, 1995.
조병은, 『가족의 위기와 해체』, 『가족학』, 199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가정폭력이 자녀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1998.
_____,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2.

Allen, C. M. and M. A. Straus, “Resources, Power and Husband-Wife Violence”, in M. A. Straus and G. T. Hotaling(eds.), *The Social Causes of Husband-Wife Violence*,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1979.

Bachman, J. G., *Youth in Transition*,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Institute for Social Research, 1967.

Bandura, A., D. Ross, and S. A. Ross, “Transmission of Aggression through Imitation of Aggression Model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1961.

Brownmiller, S. *Against Our Will: Men, Women and Rape*, New York: Simon & Schuster, 1975.

Fagan, J. D., D. K. Stewart, and K. W. Stewart, In D. Finkelhor et al.(eds.), *The Dark of Families: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Beverly Hills, Calif.: Sage, 1983.

Garbarino, J. A., “A Preliminary Study of Some Ecological Correlates of Child Abuse: The Impact of Socioeconomic Stress on Mothers”, *Child Development*, Vol.47, 1976.

_____, “Abused Wives: Why Do They Sta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No.1, 1976.

_____, “Through a Sociological Lens: Social Structure and Family Violence”, in R. J. Gelles and D. Loseke(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lif.: Sage, 1993.

- Gelles, R. J. and C. P. Cornell,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Beverly Hills, Calif.: Sage, 1985.
- Gelles, R. J. and M. A. Straus,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R. Burr, R. Hill, F. I. Nye, and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 Based Theories*, Vol.1, New York, The Free Press, 1979.
- Goode, W. J., "Force and Violence in the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3, 1971.
- Homans, G. C., *Social Behavior: Its Elementary Forms*, New York, 1961.
- Kalmuss, D.,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4.
- Kempe, C. H. et al., "The Battered Child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Vol.181, 1962.
- Kolb, T. J. and M. A. Straus, "Marital Power and Marital Happiness in Relation to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6, 1974.
- Kurz, Kersti, "Through a Feminist Lens: Gender, Power, and Violence" in Gelles and Loseke(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1993.
- O'Brien, R. G., "Violence in Divorce-Prone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3, 1971.
- Owens, D. J. and M. A. Straus, "The Social Structure of Violence in Childhood and Approval of Violence as an Adult", *Aggressive Behavior*, Vol.1, No.2, 1975.
- Schechter, S.,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and Empowering Battered Women" in M. Strauss(ed.), *Abuse and Victimization Across the Life Spa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8.
- Shultz, L. G., "The Wife Assaulter", *Journal of Social Therapy*, Vol.6, 1960.

- Singer, J.,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 Snell J. R., R. Rosenwald, and A. Robey, "The Wifebeater's Wife: A Study of Family Interaction",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Vol.11, 1964.
- Steele, B. F. and D. A. Pollock, *A Psychiatric Study of Parents Who Abuse Infants and Small Children*, in R. E. Helfer and C. H. Kempe(eds.), *The Battered Child*,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1968.
- Steinmetz, S. K., "Occupation and Physical Punishment: A Response to Strau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3, 1971.
- _____, "Occupational Environment in Relation to Physical Punishment and Dogmatism", in S. K. Steinmetz and M. A. Straus(eds.), *Violence in the Family*, New York: Harper & Row, 1974.
- _____, "Family Violence: Past, Present, and Future", Marvin B. Sussman and Suzanne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87.
- Straus, M. A., "Some Social Antecedents of Physical Punishment: A Linkage Theory Interpre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1.
- Straus, M. A., R. Gelles, and S. K. Steinmetz,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Anchor Press, 1980.
- Straus, M. A. and R. Gelles, "Societal Change and Change in Family Violence from 1975 to 1985 As Revealed by Two National Survey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48, 1986.
- Walby, S. "Violence", *Theorizing Patriarchy*, Cambridge: Basil Blackwell, 1990.
- Wasserman, S., "The Abused Parents of the Abused Child", *Children*,

家庭暴力 發生原因의 理論과 實際

Vol.14, 1967.

Weber, M., *The Theory of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A. M. Henderson & T. Parsons, Trans.), New York: Free Press, 1947(Reprinted, 1964).

Wolfgang, M. E. and F. Ferracuti, *The Subculture of Violence: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Criminology*, London: Tavistock, 1967.

Yilo, K. and M. Bograd(eds.), *Feminist Perspectives on Wife Abuse*, Sage, 1988.

Summary

Theories and Status of the Causes of Domestic Violence

Seung-Kwon Kim

In recent years, family violence has come to be considered one of the main social problems in Korean society. Despite the efforts of many active human rights agencies to prevent violence between family members, family violence is still prevalent.

This study is divided into four major sections. The first section describes major theoretical perspectives of family violence. Three groups of theories are explained: intraindividual theory, social-psychological theories, such as frustration-aggression, social-learning and role-modeling, resource, exchange, conflict, and sociocultural theories such as structural, cultural, feminist. These theories are useful to understand and properly explain, family violence in any society. Nevertheless the theories are limited because they discuss individual relationships, that is, one-on-one relationships. Steinmetz suggested a tri-level model that captures not only the cyclical nature of domestic violence but also the interface between the intraindividual, social-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levels of violence.

The second section explains the causes of family violence from Korean survey data. Family violence occurs in various places in Korean society. In the third sec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heories and causes of family violence is discussed in the Korean contex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causes of domestic violence in Korean society are ordered as follows: patriarchal ideology, alcoholism, lack of resources, that is, low income, unemployment, family conflict, family environment during child's upbringing, character faults, dissimilarity in character of family members,

家庭暴力 發生原因의 理論과 實際

particularly husband and wife, weak family relationship, excessive investment in and expectation from their children, etc.,

In the last section, individual, familial, and social counter-measures that could remove the causes of and prevent family violence, are suggested. In the end, we expect tha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lleviate of the causes of family violence in Korea.